



오월 그날의 용기를 전하다



'오월, 광주와 미안마를 노래하다.' 5·18 41주기를 맞은 올해 문화계는 '2021년의 광주'인 미안마와 연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 광주민미협 '오월미술제' '광주미술인들의 아름다운 연대' 2021오월미술제가 5·18 민주광장과 광주 시내 갤러리에서 열린다.

오는 30일까지 '연대로 평화를 펼치다'를 주제로 열리는 '오월광장 미술전'에는 9개 연대전에서 만나는 일부 작품이 소개되며 '오월, 봄 혁명을 위하여' 섹션에는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미안마 현지 작가들의 생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오월전 '오월, 봄'전은 18일까지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며 오월미술제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들고 스탬프 미술투어를 진행하는 연대전시도 만날 수 있다.

# 전남대박물관 '위드 미안마(with myanmar)' 전 전남대는 1980년 오월 항쟁의 역사적 장소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의 행렬은 전남도청으로 이어졌고, 그 물결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행렬이 떠나면 타국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회귀한다는 점은 참으로 상징적"이다. 오는 6월 7일까지 전남대학교 용봉관 2층 대학역사관에서는 미안마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민주화 지지 연대전시 '위드 미안마' (with myanmar) 전시가 열린다.

# 포도나무갤러리 'RAISE THREE FINGERS!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예술적 연대' 'Raise Three Fingers'는 미안마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시작한 캠페인으로 2021년 2월1일 군사 쿠데타로 인한 미안마 인권 위기를 알리고 전세계 예술 공동

체의 연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운동이다. 그들에게 '세 손가락을 드는 행위'는 폭력에 대한 저항과 연대,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호출이었다.

광주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백서로 79-1)는 'RAISE THREE FINGERS!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예술적 연대'전을 오는 6월12일까지 진행한다.

전시에는 군부의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업로드된 50kb미만의 이미지를 출력한 미안마 예술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바다우카오, 록 데이먼 등 전세계 예술가들이 미안마 민주화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올린 작품, 광주 민미협 회원들의 작품이 함께 내걸린다.



▲ 광주민미협 주최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오월광장 미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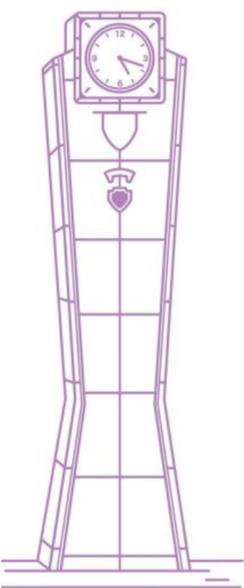
▶ '위드 미안마'전에 걸린 '우리의 영웅'



올해 '오월서가'의 또 다른 행사는 오월 관련 다양한 자료를 비치해 그 정신을 공유하고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5·18기념재단이 지난해부터 광주 13곳 동네책방

올해는 광주 13곳, 광주 외 지역 35곳 등 전국 48곳 동네책방이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월 말부터 광주 동네책방을 비롯해 전국의 동네서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 양림동 포도나무갤러리에서 열리는 'RAISE THREE FINGERS!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예술적 연대' 전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제작한 25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오월서가, 광주'

18일~7월 19일

동네책방에서 만나는 광주 5·18. 1980년 당시 광주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주고 5·18 민주항쟁이 확산할 수 있도록 기록 역할을 했던 공간 가운데 하나가 녹두서점이다.

로 광주정신의 송고한 뜻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과 미안마민주화운동 이야기를 담은 '오월서가, 광주' 굿즈 전시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동네서점 9곳에서 열린다.

의 서, 책과생활 등 모두 9곳. 이들 서점에서는 광주의 시계탑, 미안마 시민저항 상징인 세 손가락을 활용한 이미지 포스터, 책보자기, 자수키링, 향낭 등을 활용한 전시가 진행된다.



동네책방 '소년의 서'에 마련된 '오월서가'

동네책방 숨 예지책방 러브앤프리 사이시옷 연지책방 파종모종 산수책방 꽃이 피다 소년의 서 책과생활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Logos and awards for Beltone, including CES Innovation Awards 2016 and BIG Innovation Awards Chairman's Choice 2017.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